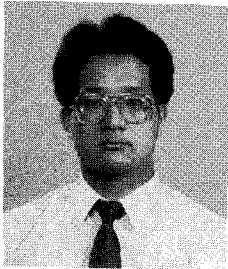


2001년 경기변동에 따른 축산업 발전방안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장)

1. 서론

작년에는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연초부터 떠들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세기가 바뀌어 21세기로 진입하는 올해에는 평년보다도 덜한 것 같다. 아마도 2000년 들어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급기야는 후반기에 제2의 경제 위기설이 고개를 든 탓일 것이다.

3년전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이 대량으로 도산하였고 실업이 급증하였다. 새로이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많은 부실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숫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어려웠던 농민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시작한 것도 이 때와 시점을 같이 한다. 농민들의 생활도 그만큼 어려워진 탓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외환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고, 과거 외환위기 때 겪었던 축산업의 경험을 살펴본 다음, 축종별로 2001년 전망과 아울러 우리나라 축산업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제2의 경제위기설과 2001년 경기 전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와 외국의 기관들이 입을 모아 우리가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경제에는 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외국의 기관들은 지금의 우리 경제가 1997년 IMF 위기 때와는 크게 다르므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원/달러 환율은 2000년 3/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100원대의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약세로 전환되었다. 2000년 10월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01년 1월 17일 현재 1,284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화의 수요가

가장 큰 연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원화 약세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엔화·대만달러 등 주요국 통화의 약세, 국내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경기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런 경기 하강은 올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0년 하반기이후 계속된 경제내의 불안요인들이 2001년에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내수증가세 둔화가 올해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전망을 과거

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전망이 순조로운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불안 요인을 신속히 제거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신속한 경제불안 요인이 제거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은 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3. 과거 외환위기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

최근의 경제상황이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상황과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축산업에 미쳤던 영향의 방향면에서는 별로 다를 바 없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환율의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 사육시설, 유통가격 등 생산요소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수요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소득 증가율 또는 절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에 차이를 가질 뿐이다. 한편, 환율의 상승은 수출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수입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행히도 작년 구제역으로 인해 수출에 대한 유리점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과거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축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육우부

표. 각 기관별 2001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경제성장 (%)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		경상수지흑자 (억달러)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국내 기관	LG경제연구원	9.4	5.8	2.2	3.0	4.0	4.3	120	107
	한국금융연구원	9.0	6.2	2.5	3.5	4.1	4.1	90.2	55.2
	한국은행	9.3	5.3	2.3	2.7	-	-	100	45.0
	삼성경제연구원	9.0	5.7	2.4	3.4	4.1	4.3	102	63.6
	산업연구원	9.2	5.9	2.2	3.5	-	-	117	87.0
국외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9.2	5.1	2.3	3.4	-	-	103	92.0
	OPCD	8.9	5.8	2.5	3.5	4.0	3.7	-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0 4/4 KDI 경제전망」, 2000. 12
산업연구원, 「현 경기상황과 내년경기 전망」, 「e-Kiet산업경제정보」제19호, 2000. 12
한국은행, 「2001년 경제전망」, 2000. 12
LG경제연구소, 「2001년 국내경제전망」, 「주간경제」602호, 2000. 12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01」, 2001. 1



문에서는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했다. 1997년 12월 한육우 사육두수가 273만 5천두에서 1년뒤인 1998년 12월에는 238만 3천두로 무려 56만 4천두가 감소하여 20.4%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2000년 12월 현재 159만두로 크게 줄어들어, 한우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8년 당시 사료가격 인상 등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한육우 농가가 사육포기를 하면서, 사육하고 있던 소가 도축되었다. 단기적으로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의 하락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소득 감소가 쇠고기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이 또한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었다. 공급측과 수요측 모두가 가격하락의 커다란 요인을 지녀 가격의 폭락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1999년 이후에는 소 사육두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이제

는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축소됨에 따라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단, 한육우 가격이 상승했다고는 하나 이미 사육기반 자체가 크게 위축되어 산업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게 된 이후이다. 이러한 기반을 다시 확충하는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양계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생하였다. 산란계부문의 경우 1997년 말 사육수수가 4,819만수이던 것이 1년 뒤인 1998년 12월에 가서는 4,750만수로 줄어들었다. 육계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사육수수에 비해 1년 뒤인 1998년 12월 사육수수는 약간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연중으로 보면 사육수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의 경우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생산량이 5.8% 감소하고 소비량은 6.7% 감소하였으며, 계란의 경우는 각각 4.7%, 4.4% 감소하였다. 즉, 공급측면에서는 환율의 상승으로 사료가격과 기자재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도입한 시설을 갖춘 양계인들에게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환율이 상승한 만큼 커지게 되었다. 소비자들의 소득 감소로 인한 양계산물의 소비감소로 양계산물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게 되어 많은 양계농가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생산조절

상태에 돌입하기도 하였지만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양돈산업의 경우에는 다소 영향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환율의 상승에 의한 생산비용의 부담면에서는 그 양상이 같아 하더라도, 수요측면에서 쇠고기와 닭고기에서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값이 싼 돼지고기로 소비가 대체되면서,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돼지고기 소비가 14.2%나 증가하여 가격도 다소 높게 형성된 바 있다.

4. 축종별 2001년 수급 및 가격 전망

올해의 경기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비한다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과거 외환위기 때에 비한다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가정하고, 축종별로 2001년 수급 및 가격 전망을 하여 보자.

한육우의 경우 사육두수의 감소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큰 폭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급량의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증가율이 1% 이하의 낮은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급상의 차이로 인해 올해 한육우 가격은 2000년도에 비해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양계산업 중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육계부문의 경우 환율상승과 1월초에 있었던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사육두수는 전년도에 비해 3% 내외 수준이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6% 정도의 신장세는 나타낼 것으로 보여,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5% 내외로 상승할 전망이다.

산란계부문의 경우는 사육두수, 소비량, 계란가격 모두가 2000년도 수준에 비해 조금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상승률은 대략 5% 정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산업의 경우는 올해에도 타 축산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 이후 질병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환율이나 경기 이외의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이미 사육두수 조정이라는 현안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전년도에 비해 3~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이전의 소비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5~7%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급측면에서나 수요측면에서 모두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돼지고격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5. 환율 상승과 경기변동에 따른 축산업의 발전방향

경기의 변동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년전의 외환위기와 같은 환율의 급격한 상승현상이 또 한차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

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제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환율상승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공급의 감소 또는 공급증가율의 감소와 수입량의 증가로 나타나고, 경기 침체의 영향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소비의 감소 또는 소비증가율의 감소, 수입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환율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생산요소를 국산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의 경우 조사료 기반확충이나 돼지나 닭의 경우 부존자원의 이용극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종 기자재의 국산화 또한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조금의 활성화는 반복하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차제에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자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거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연구개발사업의 강화, 홍보전략의 수립이 과거 어느 때 보다는도 강조된다.

부존자원의 이용 극대화나 소비확대 대책 등은 축산농가 개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을 조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밖의 다른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는 생산자 개개인의 힘보다는 모두가 뭉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양계**

케이지 전문업체

- 집란 케이지 ● 종계 케이지 ● 일반산란 케이지
- 초생추 케이지 ● 중,대추케이지 《설치 및 철거전문》
- ※ 토끼 케이지 (신형 토끼케이지 개발)

전국 어느 곳이든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신 성 케 이 지

사무실 및 공장 : 인천광역시 북구 청천동 69-2 휴대폰 : 011-484-3002
전 화 : 032-523-7149, 519-4320 팩 스 : 032-519-4320